

최적의 하우스 동간 간격과 높이 고려한 설치, 내부 일정하고 풍부한 광량 확보 광투과·무적(無適)효과 모두 만족, 16년째 크린알파 PO필름만 사용

“청양고추를 10월초 정식 후 11월 중순 첫 수확하여 이듬해 6월까지 수확하면 990㎡ 기준 1,000박스(1박스당 10kg) 가량 출하 가능합니다. 타 농가는 대략 600~700박스 정도로, 30% 이상 증수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휴경 3개월간(7~9월) 철저한 토양관리와 더불어 양질의 광이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하우스 한 동당 거리가 4m 70cm, 앞 동 하우스 높이는 3m 30cm로 처음부터 그렇게 시공, 해가 질 때까지 하우스 내부 골고루 빛이 들어오게끔 설계되어 있는 온실 모습.



청양고추가 앞뒤 좌우 모두 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오후 4시경 온실 내부가 환하게 비춰지고 있다. 원내는 최적의 한국 환경에 고려, 제작된 PO필름 크린알파-S(두께 0.01mm), 경제 수명이 2년인데도 4년째 사용하고 있다. 아직도 투명도가 뛰어나 보인다.

새해 벽두부터 숨은 농부 고수(高手)를 찾아가는 길, 기차를 타고 오는 내내 설렘의 연속이었다. 밀양역에서 만나, 고추 전문가를 찾아가기로 했다. 저번 본지 1월호에 소개된 참외명인 박진순 씨만큼 고추에 대해선 타의추종을 불허한다고. 지난 10월 11~13일 (주)ARTS PO필름 해외 연수프로그램에 같이 참가하여 옆자리에서 여러 차례 식사를 한 장면들이 불현듯 스쳐지나가며 그립기도 하고 사뭇 반갑기도 했다. 그는 그리고 바쁘게 일하고 있는 젊은 분 한 명을 소개하며 “저와 5년간 멘토링(멘토와 멘티)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모 신문에 제 기사 난 것을 보고 고추 배워보려고 온 법대생이었는데 그때 36세였지요. 지금 41세인데 완전 독립해서 고추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같은 영농조합도 운영하고 현재는 제가 온실 자동환경제어(ICT) 관련해서 역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서로 무척 의지하며 지내

고 있지요.”
심상환 씨가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자신이 아는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공유하고 주고받기까지, 참 쉽지 않은데. 그것도 처음 본 남에게... 더욱이 자신을 찾아온 손님에게도 알아두면 좋다며 일일이 인사를 건네게 한다. 너무 훈훈했다. 따뜻한 어른으로써의 농부를 보는 것 같아서, 잠시 오늘 온 목적도 잊을 정도였다. 고추를 봐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문을 열고 재배하우스 안으로 들어갔다.

하우스 동당 거리 및 높이를 철저히 고려, 시공하여 구석구석 고르고 충분한 광량 확보+확실한 품질의 PO필름 덕에 다수확 고추 생산 가능

“거의 오후 4시가 다 되었지요. 한 번 보시죠. 뒤쪽까지 햇볕이 들어오는 게 보입니까?” 아니 진짜로 북측 면까지 환하게 햇볕이 들어가고 있었다.



1년 동안에도 수백 명의 고추재배 농가들이 찾아오는 명소, ICT 융복합 현장교육장. 원내는 현장교육장 사업진행 안내 입간판.



외부 보온덮개를 1, 2중으로 권취할 수 있게끔 제작, 난방비 절감은 물론 급격한 온습도 변화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



체계적인 토양 및 수분 관리는 기본이고 겨울철 부족한 광량을 충분히 확보하므로, 고추 절간이 똑같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 일정한 절간길이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음을 나타내는 바로미터.



예전 8ha 규모의 큰 육묘장 생산 관리한 경험을 살려, 직접 과채류 농사만 벌써 수십 년간 하고 있다는 심상환 씨. 농업은 토양, 광(光), 온습도, 물 관리 등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어떤 결과물도 기대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기본 쉬운데 실천하기 참 어렵다.

“겨울철 수량 차이가 여기서부터 납니다. 광량이 충분하면 훨씬 고추 생장이 좋아지고 당연히 품질이든 수확량이든 모두 좋지 않겠습니까?” 어리둥절해있자, 밖으로 안내한다. “하우스 한 동당 거리를 4m 70cm, 각각 앞 동 하우스 높이를 3m 30cm로 설치, 서쪽으로 해가 질 때까지 하우스 내부 구석구석 빛이 들어오게끔 설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 방 제대로 맞은 느낌이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철저히 설치했더라도 필름이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16년째 (주)ARTS PO필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만큼 소프트웨어인 필름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믿으니까요.” 또 하나의 비장의 무기를 보여준다면 따라오라 한다. “눈이 거의 없는 밀양식 하우스는 보온덮개를 이불같이 온실 위에도 덮어주는데 저는 2중으로 권취할 수 있게끔 설치했죠. 난방비가 30% 이상 절감되는 것은 물론 필름의 수명 역시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급격한 환경 변화가 없어서 그런지 아님 워낙 필름이 좋아서인지는 모르겠고, 남들이 2

년 사용할 것을 4년 정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생산 회사에겐 조금 미안하죠.” 어쨌든 오래 잘 사용하면 하는 만큼 경영비가 절감되니, 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닌가. 심상환 형제농장 대표에게 취재 말미에 말보다 행동으로 엄지척(☺)을 해보이며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라고 기원을 팍팍 해드리고 돌아왔다. 오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 다음엔 꼭 매운 청량 고추에다 탁주 한 사발같이 하면서 한국농업의 미래를 얘기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어서... 제대로 된 은둔 고수를 만났기에 말이다. 이런 장기성 폴리올레핀(PO)필름은 20여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농업용 필름 전문업체인 (주)ARTS(대표 정두석, www.arts21.co.kr)가 국내 최초 수년간 일본 스미토모화학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한국 환경에 최적화시켜 제품화한 것이다. 연동하우스 및 단동하우스 전용에서부터 두께별, 길이별 그리고 2~5년 이상 사용 가능한 것까지 아주 다양한 PO필름의 공급은 물론 철저한 애프터서비스(A/S)는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농원**



◀ 지난 2018년 10월 11~13일까지 고기능성 PO필름 해외 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한 (주)ARTS 전국 사용 농가 및 본사 직원, 일본 현지 생산업체 산테라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일본 문화체험 후 기념촬영 한 것. 도쿄의 랜드마크 중의 하나인 고찰(628년 창건) 센소지(淺草寺 전초사) 앞 무려 700kg 가마리문(雷門) 붉은 제등 앞에서, 옛날 백제 도래인이 세웠다고 전해진다. 사진은 (주)ARTS 김영호 이사 제공.